

수원처럼 ... 광주 군공항 이전 탄력 받나

국방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적정' 판정

하반기 광주 군공항 평가 긍정 영향 미칠듯

국방부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사업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7일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를 13~14일 실시했다"며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을 고려

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 뒤 다음달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종전 부지 활용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비롯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수원 공군비행장 525만㎡ 가운데 56.5%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두고 나머지 43.5%(228만㎡)를 분양해 4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

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평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원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따르면 평가의 주요 항목인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은 오는 2025년까지 군 공항과 광주공항을 묶어 이전한 뒤 첨단산업·문화 복합단지인 가칭 '솔마루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 광주 군 공항의 규모는 831만㎡이며 이전 비용은 3조5000억원

이다.

광주시는 현 군 공항 부지가 광주 도심에 남은 '마지막 초대형 노른자위 땅'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업비 마련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염원과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이전 건의서를 작성·제출한 만큼 이번이 없는 한 건의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와 수원,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민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국가에서 군 공항 이전지역(역)에 대한 인센티브 만큼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연금협상 숨통 트일지...

이종걸 절충안 검토에 興 "본질 흐려"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간 연금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계속 같은 기조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다.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기초연금 보장 대상 확대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해 논의함으로써 사실상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식 참석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이처럼 절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다 당내 온건파 사이에서도 50% 명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와 의견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내에서도 협상이 예상된다. 강경정 정책위의장은 "5·2 합의와 별도로 자구 내용을 바꾸는 건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했다.

협상 상대인 새누리당도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교착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도 공무원연금 협상에 장애가 됐는데, 여기에 기초연금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사실상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다른 문제들까지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을 전제하고 일단 공식 반응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론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데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합뉴스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

2만여명 찾아 성료

영암자동차경주장 15~17일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FOS)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만1000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AFOS 대회는 GT아시아, 아우디 R8 LMS 컵, 포르쉐 카레라 컵 등 개별 대회를 한 자리에 모은 아시아 최고의 종합 스피드 이벤트다.

국제행사를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주장 활성화에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관계자 1500여 명이 평균 5일간 머물면서 목포권 호텔에 700실의 객실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단체 관광객 600여 명이 경주장 주변 관광 및 숙박시설을 찾아 AFOS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각됐다.

특히 올해는 '포르쉐 카레라 컵',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추가돼 대회 규모 확대됐다. 케이팝(K-POP) 콘서트 및 홍보관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해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호응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로 치러지면서 지역 주민과 모터스포츠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국내 공중파를 비롯한 파스 스포츠(Fox Sports)와 스타 스포츠(STAR Sports)를 통해 아시아 전역 및 유럽지역 3억 9000만 명의 시청자에게 전남의 관광 자원 및 경주장을 알렸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주 배 착과불량 현장 방문

신정훈(나주 화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4명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지난 16일 나주시 왕곡면 배 착과불량 피해 현장을 방문해 강인규 나주시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은 농민 우롱 ... 즉각 철회하라"

농림수산위 새정치 의원 촉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신정훈·김승남·유성엽·박민수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나주 혁신도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 밥쌀용 쌀 수입의 배경을 따져 묻고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과 농림수산부 김중훈 식량정책

책관 등에게 "쌀 관세와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쌀의 국가별, 용도별 수입의무 쿼터가 없어졌으나 시중 쌀값이 폭락한 상태에서 또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수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중훈 식량정책관은 "쌀 수입은 국내 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밥쌀용 쌀 수입은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또 공사 앞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결정에 항의하며 천막농성 중인 전국농민회 소속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쌀수입 반대와 쌀값 하락 대책 등에 대한 농민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의원들은 나주시 왕곡면과 영암군 신북면의 배 착과불량 피해농가를 찾아 피해조사를 함께하고 피해방지, 보충적용 대책 등 농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방문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전동평 영암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공직자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되면 연금 100% 정지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안 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멈춘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해당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 ▲지방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 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역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29일까지 공모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오는 29일까지 신입 원장을 공모한다. 3년 계약 형인 신입 원장 공모는 서류와 면접 전형 등을 통해 선발한다.

자격요건은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 5년 이상 근무 ▲대기업 이사급 이상 근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력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

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등이다.

보수는 연 8500만원~1억1000만원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전남도 출연기관이다. /*윤현석기자chadol@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프랜차이즈 개발회사 / 2015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학교 운영기관 / 2015 조선이공대 외식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기관 www.startbiz.co.kr

광주, 전남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구축에서 가맹점모집까지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조계현소장의 23년 노하우를 활용하십시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예비창업자의 안전창업을 위한 12단계 리스크 필터링시스템 자체개발!

조계현 소장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일보 창업칼럼니스트
조선대학교 자치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신학협동연구원 이사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자문위원
(사)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이제는 광주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창업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신규 또는 운영중인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원한다면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프랜차이즈 아이템개발 및 보완
-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운영전략 수립
-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

창업 컨설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는 안전창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 아이템 분석 및 점포개발
- 메뉴(상품, 서비스)전략구성
- 차별화 운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경영개선 컨설팅

운영중인 업체가 매출이 부진하다면 경영개선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운영진단 및 대안전략 수립
- 메뉴개발 및 보완 인테리어 리모델링
- 원가절감 및 매출강화
- 직원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역특화사업 컨설팅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면 지역특화사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농식품 6차산업 컨설팅
-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 문화관광 체험상품 개발
- 지역특화상품 연구, 개발
- 협동조합, 농업법인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The small enterprise establishment strategy institute
부설 | 세종외식산업연구원

광주, 전남권 창업中心 -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885-7 승림빌딩 2F

상담 대표전화
062) 515-0300